

아시아태평양 PE 투자 트렌드와 기회

Asia Pacific Private Equity Barometer 2023

December 2023

삼성KPMG 경제연구원

—
home.kpmg/kr



아시아태평양 PE 투자 트렌드를 통해 살펴본 기회 요인과 전망

2023년 들어 PE 투자 활동 저하됐으나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며 반등할 가능성

- ✓ 2023년 상반기 아시아태평양 PE(Private Equity) 투자는 고금리·고물가 등의 영향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6% 감소한 847억 달러를 기록
- ✓ LP(Limited Partner) 기대 증가, 글로벌 규제 강화 등으로 ESG는 PE 투자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매김하는 모습
- ✓ 아시아 기술 혁신의 중심 국가로서 중국에 대한 PE 투자는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무역·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인도, 동남아시아와 안정적 투자 환경을 제공하는 일본, 호주에 관심 고조
- ✓ 인공지능(AI) 적용 범위 확대, 의료 인프라 촉진 등의 영향으로 테크놀로지와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
- ✓ 경제 불확실성 및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으로 아시아태평양 PE의 엑시트(Exit) 거래량이 급감했으나, 물가상승률 둔화, 각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등에 따라 2024년 하반기부터 반등 전망



본 보고서는 KPMG Global이 발간한
“Asia Pacific Private Equity Barometer 2023”의
한글 요약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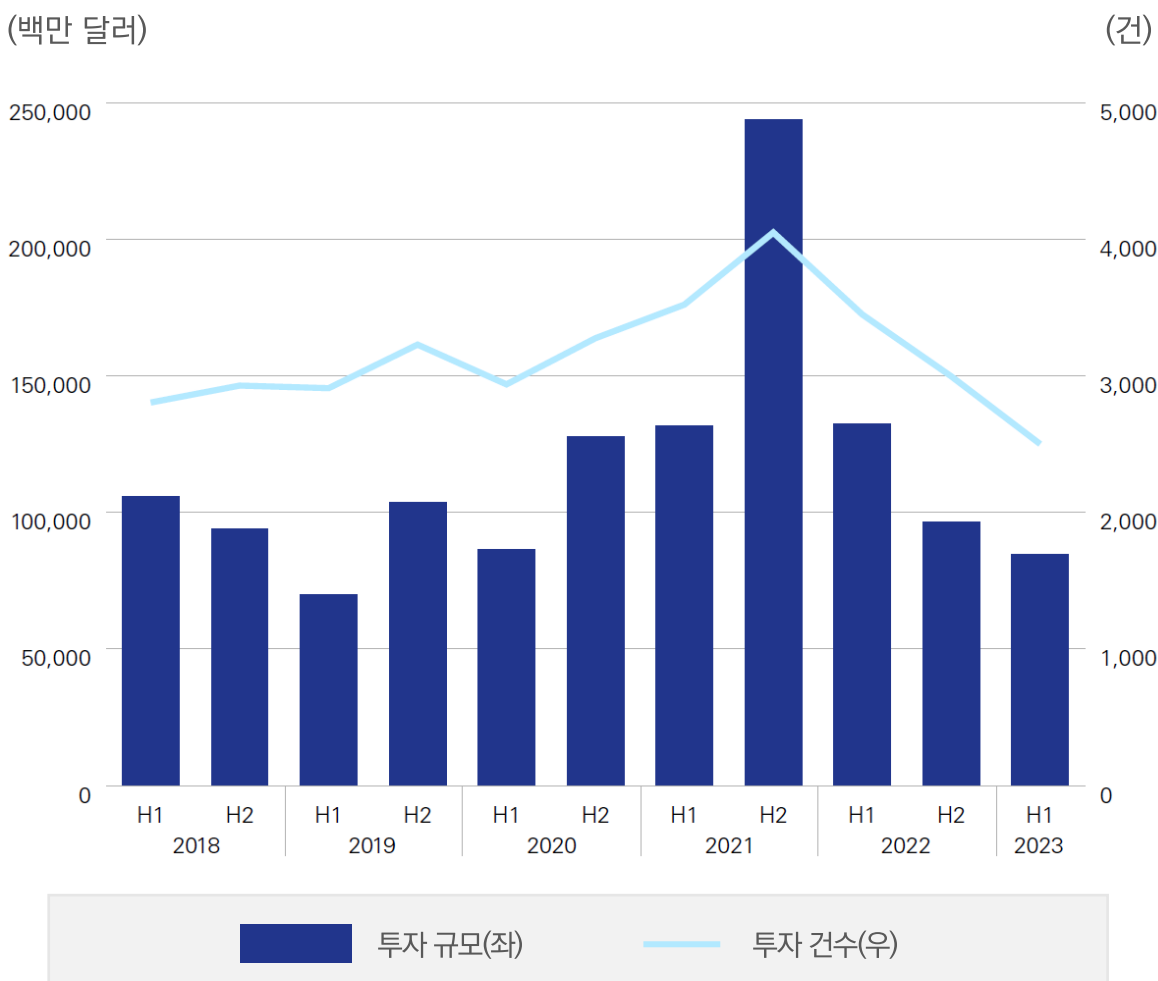
01

아시아태평양 PE 투자, 2023년 들어 둔화 양상

2023년 상반기 아시아태평양 PE 투자, 84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 감소

- 금리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유동성 감소와 차입비용 증가, 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아시아태평양 PE 투자 급감
- 팬데믹 이전 수준의 투자 지속, 건조한 미집행 투자금(Dry Powder) 등 고려 시 PE 시장의 관심 저하가 아닌, 재조정 시기로 분석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PE 투자 추이



출처 : AVCJ

02

투자 전략의 중심이 되는 ESG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ESG,
가치 창출의 필수적인 요소로 부상

- ESG에 주목하는 투자자 증가,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펀드 매니저들은 ESG를 통한 수익률 향상을 고민하며 ESG 위험과 기회에 대한 잠재적 투자를 선별하기 시작
- 아시아태평양 PE 기업들은 ESG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ESG 공시 의무화에도 철저한 준비 필요

아시아태평양 PE의 ESG를 강화하는 요인



ESG 성과를 평가하는
대규모 LP 증가



ESG 데이터를 초기
투자 결정 단계에
통합하는 펀드들



ESG 공시 의무화 등
ESG 규제 강화

출처 : KPMG International, Asia Pacific Private Equity Barometer 2023,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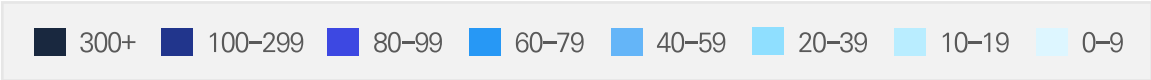
중국의 대체 투자처를 모색하는 PE

중국의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 성장 둔화, 규제 심화 등으로 ‘Next 중국’을 찾는 투자자들

- 중국 PE 투자는 2023년 상반기 442억 달러로 아시아 PE 자금의 73%가 집중되며 제조업,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서 건재한 모습이나 무역·규제 불확실성 상존
- 기술에 정통한 젊은 인구와 대규모 소비층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인도와 동남아시아에 주목
- 발전된 투자 환경을 제공하는 일본과 호주에도 글로벌 GP(General Partner)들의 관심이 지속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산업별 매물 기업 수

	중국	남아시아 - 싱가포르 제외	싱가포르	일본	한국	호주 및 뉴질랜드	인도	합계
산업 및 화학	788	44	27	55	83	55	79	1,131
TMT	399	75	83	45	82	109	105	898
금융서비스	255	89	16	40	26	57	95	578
에너지, 광업, 유틸리티	280	69	28	16	15	104	45	557
소비재	217	56	11	15	44	112	94	549
의약품, 바이오테크	255	49	28	21	20	66	76	515
비즈니스 서비스	305	28	16	13	18	71	59	510
부동산	209	24	6	4	2	14	7	266
건설	170	15	1	5	11	17	21	240
여가	78	33	7	6	25	44	7	200
운송	76	34	6	3	12	28	21	180
농업	43	16	2	2	2	19	6	90
방위	5						1	6
합계	3,080	532	231	225	340	696	616	5,720



출처 : Mergermarket
주: 2022년 1월 9일부터 2023년 8월 18일 동안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매물 기업을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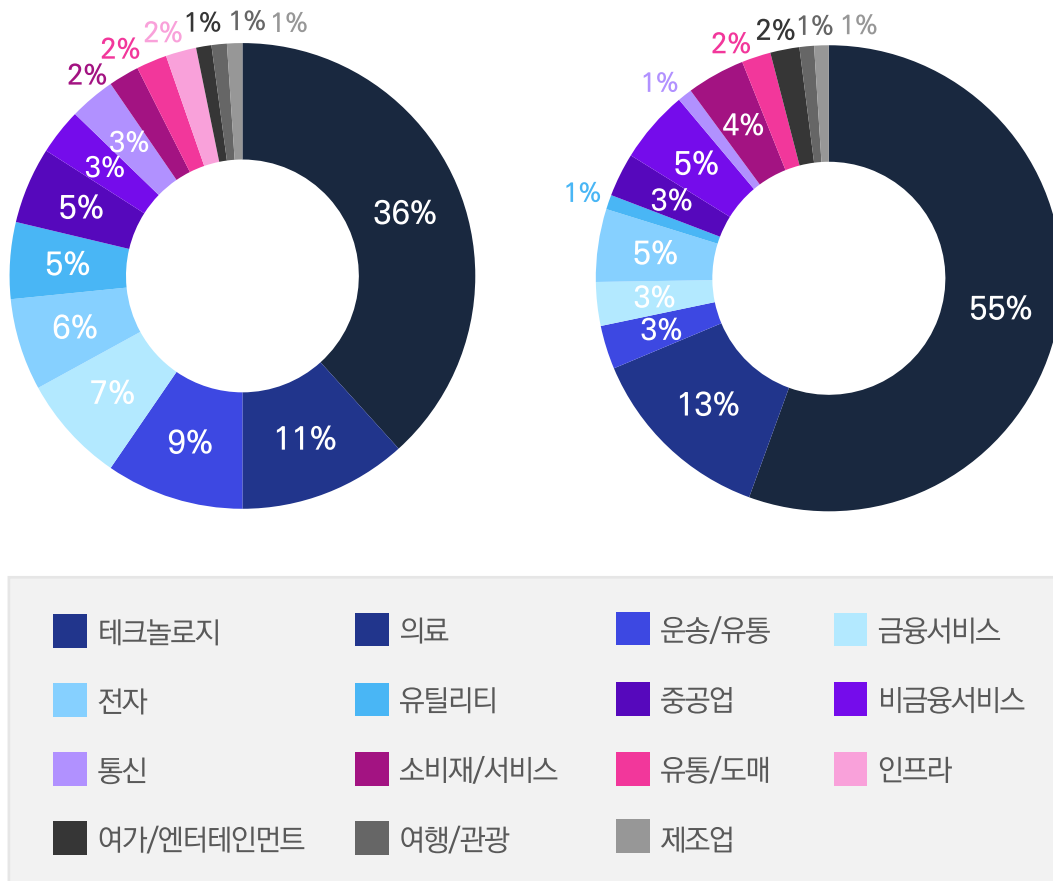
04

PE가 주목하는 테크놀로지·헬스케어

디지털 전환 가속화되며 핀테크에서 디지털 헬스케어까지 다양한 기회 발생

- 2018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이루어진 아시아태평양 PE 투자 중 테크놀로지 분야는 55%를 차지(투자 건수 기준)
- 특히 인공지능(AI)은 사이버보안 및 사기방지, 제조 자동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응용되며 투자가 집중
-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의료 인프라 촉진 정책 등 헬스케어 투자 환경도 우호적으로 변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섹터별 PE 투자 규모 비중(좌) 및 투자 건수 비중(우)



출처 : AVCJ

주: 2018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기준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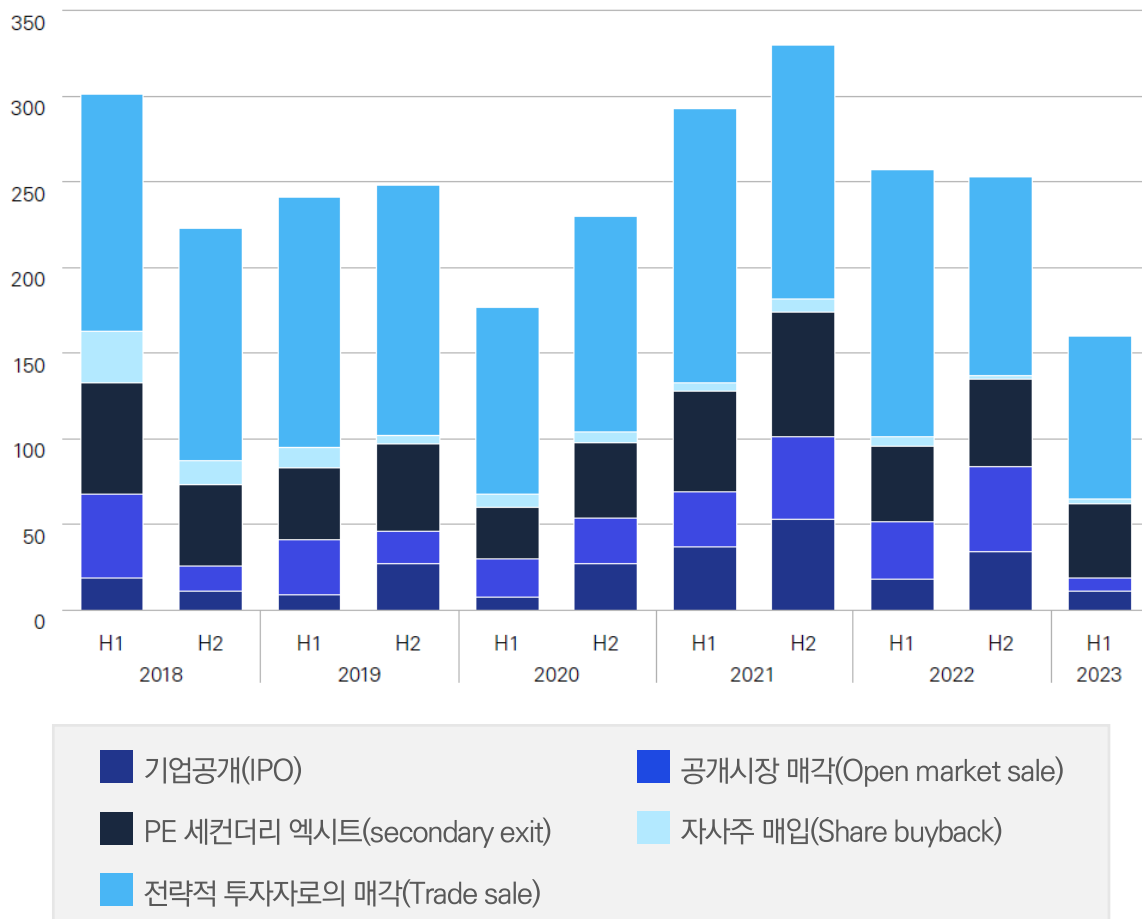
2020년 이후 가장 어려운 엑시트(Exit) 환경에 직면

경제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 속
IPO 등 주요 엑시트(Exit) 거래량 급감

- 불확실성 및 지정학적 리스크 점증, 고금리로 인한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으로 기업 인수와 투자에 신중한 투자자들
- 인플레이션 둔화, 금리 인하 시 2024년 하반기부터 기업공개(IPO), 세컨더리 바이아웃 등 거래 반등 기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엑시트(Exit) 추이

(건)



출처 : AVCJ



Business Contacts

Deal Advisory

김진원
부대표

T 02-2112-0795
E jinwonkim@kr.kpmg.com

김형천
상무

T 02-2112-0234
E hyunchunkim@kr.kpmg.com

이기영
상무

T 02-2112-0239
E kiyounglee@kr.kpmg.com

정재훈
상무

T 02-2112-3408
E jaehoonjung@kr.kpmg.com

삼성KPMG 경제연구원

최연경
책임연구원

T: +82 2 2112 7769
E: yeonkyungchoi@kr.kpmg.com

이효정
상무

T: +82 2 2112 6744
E: hyojunglee@kr.kpmg.com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